

어떻게 복음서들을 읽을 것인가?

서 인 석

복음서들을 읽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 책들을 읽으면서 각자가 추구하고 있는 목적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진다. 만일 어떤 독자가 기분 전환을 위해, 아니면 교양을 쌓기 위해, 혹은 또 다른 목적을 위해 읽는다면, 그는 동일한 과정을 거치면서도 독서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독자가 제일 먼저 제기해야 할 질문은, “무슨 목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복음서들을 읽는가?”이다.

1. 복음서들을 무슨 목적으로 읽는가?

I. 지식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복음서들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또 예수와 그분의 생애와 가르침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려는 생각에서 그 책들을 읽어볼 수 있다. 그러나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네의 기원을 남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들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책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고, 예수 당대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었는지 등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될 필요는 없다. {……}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리스

도인이라면, 누구나 자기 가족의 역사에 관해 알기를 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그의 욕망은 일종의 필연성이 되고 있다. 사실 이런 필연성은 언제나 알고 싶어하고, 또 교양을 증대시키고 싶어하는 단순한 욕망 이상의 그 무엇을 지적하고 있다. 누구든지 어떤 분을 흠모하거나 사랑하면 그분에 관해 모든 것을 알고 싶어하는 욕망이 생겨나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일이 아닐까! 다시 말해 이런 욕구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더 잘 알고, 우리의 정체성을 더 깊이 인식하는 일종의 방식에 불과한 것이다.

II.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복음서들은 단순히 알아두어야 할 지식의 대상만을 전해주는 책들이 아니다. 이 책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실행하는 것으로, 예수의 삶과 말씀에 맞추어 행동을 하도록 권유받고 있는 셈이다. 복음서들은 ‘하나의 길을 가르치고 있고,’ 또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일종의 행로(「마태」 7: 24~27)를 제안하고 있다. 그 책들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요한」 14: 6)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분 자신을 계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음서들에 따르면, 실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행동하는 하나의 방식이 아니다. 차라리 그 실행은 우리 안에서 이미 싹터 자라나고 있는 실존 양식, 아니면 더 나아가 그 싹틔의 형성 과정의 한 가지 방식을 지칭한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싹터 자라나고 있는 형성 과정의 씨앗은 우리 각자가 하느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다. “복되여라, 평화를 이룩하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어지리니”(「마태」 5: 9). “여러분의 원수들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은 하늘에 계신, 여러분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마태」 5: 45). 독자는 인용한 이 두 구절에서 동사의 미래 시제에 유의할 것이다. 미래의 시간 안에서 우리의 존재와 그 형성 과정이 점차로 성숙되어 결국 하느님의 자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추천한 이런 방법은 이미 복음서들을 읽는 방식에도 적용되고 있

다.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문자로 기록된 내용을 기억 속에 녹음해두는 것이 아니다. 원래 독서 행위란 텍스트에 대해 능동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다. 독자는 언어를 골재로 삼아 구축된 건축물인 텍스트에 온통 주의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고, 텍스트 안에 있는 그 어떤 요소도 소홀히 다루지 말아야 하며, 텍스트의 난해한 부분 때문에 독서를 중단하지 말아야 하고, 결국 텍스트가 독자를 위하여 그 자취를 남긴 말씀을 끈질기게 추적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독서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독자의 능동성이 최대한 발휘되어야 한다.

그러나 독서의 이 같은 활동은 우리 각자에게 자신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성해나가는 과정의 한 방식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현자(賢者)를 자주 찾아가봄으로써 슬기로운 사람이 되듯이, 우리가 복음서들을 읽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정력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지금 읽고 있는 그 복음의 텍스트들을 통해 우리 자신들을 변형 혹은 변형시키는 것과는 비슷하다. 그런데 복음의 텍스트는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도록 권유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을 뿐더러 또한 어느 길(道)의 실천을 통한 우리 자신들의 변형으로도 만족하지 않는다. 우리가 읽음으로써 우리 자신을 변형시키는 텍스트는, 우리가 그 안에 자리잡고 있는 한 공간처럼, 또 우리가 보내는 한 시간의 기간처럼, 자신의 본모습과 그 권리 주장을 독자인 우리에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복음적 텍스트란 읽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 자신을 변형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만나려고 찾아오는 손님의 공간이요 시간인 것이다. 그런 이유로 타자인 손님으로 나를 찾아오는 텍스트의 시간과 공간은 나에게 현재 또 지금의 이 공간에서 독서 행위를 통해 <그 무엇을 원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독자인 나를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고 혹은 아니면 나를 열광케 하거나 의미의 보람 속으로 몰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해야 하리라.

III. 잊어버리기 위하여?

흔히 우리는 여가를 선용한다는 뜻에서, 혹은 기분을 전환하기 위하여

또 생활에서 오는 걱정들을 망각하기 위해 독서라는 행위를 한다. 그와는 정반대로 가령 우리나라의 과거 역사서를 읽거나 혹은 우리 가족의 연대기를 읽을 때, 우리는 '기억하기 위하여,' 아니면 적어도 가족의 과거에 관한 우리의 기억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독서라는 행위를 한다. 사람들이 복음서들을 공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전례 모임에서 읽는 것은 바로 '이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이 기억을 보존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망각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누구인가'에 대한 기억을 상실함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상실한다는 것과 같은 뜻이다.

그러나 복음서들은 단순히 예수와 그 첫 제자들의 과거에 관한 추억들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또 우리의 기억을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문자로 씌어진 것이 아니다. 그 책들이 눈앞에 놓여져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분의 생애 또 그분의 말씀에 대한 '기억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이다. 기억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상상력을 동원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과거 속으로 옮겨가게 하여 그때에 발생한 일들을 회상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 행위는 내 안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형성되고 있는 현재적 행위이다. 「마르」 14: 9에서, 예수는 자기의 머리 위에 값비싼 향유를 쏟아부은 여인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단언하고 있다. 즉 “진실히 여러분에게 이르거니와,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행복한 선언)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이야기되어져서 그녀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 여인이 한 일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세상의 어디에서나 또 언제나 복음 선포를 동반하는 기억의 행위가 될 것이다. 복된 선포의 말씀은 예수께서 살아생전 이 여인에게 한 기억의 행위를 통해, 말씀을 경청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확산되어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그 말씀은 예수와, 그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오늘의 독자들인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현실을 성가시게 할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므로 복음서들을 읽음으로써, 기억의 행위를 한다는 것은 우리 존재의 심층부에서 우리를 건드리려고 찾아오고 있는 복된 선포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다.

IV. 텍스트에서 그 어떤 내용을 뽑아내기 위하여?

흔히 우리가 복음서들을 읽는데, 그것은 이 책들에게서 우리가 그 무엇 혹은 썩먹을 어떤 내용을 뽑아내기 위해서이다. 즉 우리에게 용기를 줄 좋은 생각, 실천에 옮겨야 할 어떤 교훈, 설교나 혹은 명상을 하기 위한 기발한 아이디어 등등이 보통으로 우리가 텍스트로부터 찾아내고 싶은 것들이다. 이때 우리는 복음적 텍스트로부터 빠져나와(혹은 외출하여) 텍스트의 내용에서 그 무엇을 추출하기 위하여 텍스트를 읽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독서 행위 이후에 그 결과로 잇달아 올 것(가령 설교나 강의 혹은 명상의 재료 등을 준비하려는 목적에서)을 미리 생각하며 텍스트를 도외시함으로써 읽고 있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읽는다는 행위가 능동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고, 또 이 자세가 벌써 우리를 변형시키고 있다면, 중대한 것은 텍스트로부터 빠져나오거나 그 어떤 내용을 추출하기에 앞서 ‘그 텍스트 안으로 진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서들을 아주 오래된 책들처럼, 과거의 문헌들처럼 혹은 경이롭고 아름다운 이야기처럼 간주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 우리가 그 책들 속으로 진입하는 것은 비원처럼 아름다운 고궁을 방문하기 위해 그 왕궁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도 흡사하다. 우리가 일단 그런 고궁에 들어가면, 우리 자신이 터놓지 않았던 길들을 알아보아야 하고 또 그 길들을 따라가야 한다. 그리고 그런 고궁은 아름다운 건축물들과 정원들이 있기에, 어떤 곳은 자연적으로 우리의 발길을 멈추게 한다. 내가 만일 외국인으로서 처음 그런 고궁을 방문했었다면, 나는 그 궁을 빠져나온 후에 이제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한국적인 건축물과 공간 배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배운 사람으로 변형되었기 때문이다.

고궁의 이미지로는 아직 부족하다. 복음서들이 관계된다면, 그 내용이 구경할 경치들, 곧 우리 몸 밖에 있는 아름다운 건축물들이나 단순한 구경

거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복음서들은 언어를 골재로 삼아 짜여진 교직물이다. 이 책들은 단어들, 문장들, 인용된 말씀들로 짜여져 있다. 그런데 언어란 바로 우리 자신의 실존을 구축하고 있다. 우리가 인간적 존재들이란 것은 말을 하기 때문이며, 또한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을 배우기에 앞서, 이미 다른 인간적 존재들이 우리에게 말을 했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고전적인 책들이나, 시 작품과 문학 작품들은 침묵 속에서 아직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서가의 침묵 속에 묻혀 있는 그런 책들이지만, 고전 문학들은 우리가 읽을 경우에 우리로 하여금 인간적 존재들로 변모시키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그런 훌륭한 작품들은 우리 안에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건드리고 있다. 우리의 유년 시기에 그 표지를 남긴 말씀들의 자취들, 그 누구로부터 불려지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심층적 욕망, 우리가 아직은 미완성의 존재요 형성 도중에 있는 존재들이란 것을 강하게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고전적 작품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복음서들’도 인간 존재의 이 심층부에서 우리를 건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책이다. 그 책들이 ‘복음’에 봉사하는 문서들이요, 하느님의 편으로부터 우리를 찾아오고 있는 행복한 말씀에 봉사하기 위한 텍스트들이기 때문이다. 복음서들을 읽는다는 것은 독자 각자가 이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 스스로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을 지적하고 있다. 이때 복음의 텍스트는 어느 아름다운 경치나 혹은 당시대의 예수를 상상하기 위한 어떤 표상일 뿐만 아니라, 차라리 음악 감상실과도 비슷한 ‘경청의 방 *une chambre d'écoute*’을 건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방 안에서 보낸 독서의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경청을 위해 필요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독자가 텍스트 안으로 진입한다는 것은 그가 자기 자신의 심층부 안으로 진입 혹은 침잠하여 말씀을 만나러 가는 것 *rendez-vous*’을 의미한다.

2. 복음서들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우리 각자는 자기 나름대로 초등학교 시절부터 읽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고 또 성장하면서 자신의 읽는 방식을 개선할 수 있다. 우리는 마치 피아노를 치면서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을 배우듯이, 읽기를 되풀이함으로써 독서법을 배우게 된다. 하지만 텍스트가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그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각자는 능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또 동시에 수용하려는 감수성을 예민하게 함으로써, 말씀을 영접하려는 자세를 배울 필요가 있다. 읽는다는 행위는 다음의 두 가지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텍스트에 좋은 질문을 던지기 위해 '텍스트 그 자체에 온통 주의력을 집중하는 행위'가 그 첫째 방식이요, 또 다른 방식은 텍스트의 안내를 받아들이고 텍스트 그 자체 안에서 들려오는 말씀을 주의 깊게 경청하기 위해 필요한 '영접 혹은 환대의 자세'이다. 여기에서 이 두 가지 읽는 방식들을 위한 몇 가지 안내 사항들을 제안한다.

독자는 먼저 텍스트를 눈앞에 두었을 경우 다음의 일반적인 방향 감각을 갖는 것이 중대하다. 다시 말해

- 텍스트는 결속성과 연결성이 있는 일종의 총체성/전체성을 구성하고 있다.
- 텍스트는 무대 장치를 한 장면 안에서, 행위자들이 전개시키고 있는 작은 연극과도 같다.
- 텍스트는 어떤 주체가 발설한 말씀의 자취를 문자로 고정시키고 있다.

우리는 직접 실례를 들어가며 위의 세 가지 오리엔테이션 혹은 독서의 지침들을 검증해볼 것이다. 그 하나의 실례는 「마르」 14: 3~9의 설화인데, 독자는 이 이야기 안에서 어떤 익명의 여인이 옥합을 깨뜨리고 또 값비싼 향유를 예수의 머리 위에 쏟아붓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I. 텍스트의 모든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총체적으로 읽는 독서법을 배워야 한다

독자가 어떤 텍스트를 처음으로 읽을 때, 그는 직접적으로 눈에 띄는 것들에만 유념하게 된다. 가령 놀랍다고 여겨지는 한 세부 사항, 한마디, 한 문장 혹은 인상적인 그 어떤 요소 등이 독자의 첫눈에 띄는 사항들이다. 그러므로 독자가 이 텍스트 안에 들어 있는 ‘모든 것,’ 다시 말해 그 전체성을 깡그리 파악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 그런 이유로 독자들이 작은 그룹을 형성하여 다음의 체험을 해보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

그룹 중의 누군가가 복음 텍스트 중에서 어떤 설화, 혹은 비유 등을 선정하여 높은 목소리로 읽고 다른 이들은 그 목소리를 경청한다. 그 다음에 각자 돌아가며 방금 들은 텍스트에서 기억에 떠오른 것을 다른 이들에게 말을 한다. 보통으로 사람들은 읽은 텍스트에서 일부 혹은 몇 가지 요소들만 기억하고 있을 뿐이다. 이 같은 훈련의 목표는 각자가 기억한 것을 출발점으로 하여 텍스트의 모든 것, 곧 ‘전부’를 재구성하는 것에 있다. 이것은 각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동일한 텍스트에 대한 반복된 독서를 하지만, 그 텍스트 안에는 언제나 기억한 것 이상의 그 무엇이 들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일종의 방식이다. 잉여 의미를 되찾으려고 하는 훈련이라고나 할까…… (P. Ricoeur, 『해석학』 참조). 또 이런 훈련 도중에 독자는 주의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요소들과 각자에 의해 기억된 요소들이 서로 고립되지 않았을 때, 이 요소들의 중대성이 바뀐다는 것을 곧장 알아차리게 된다. 다양한 텍스트들에 대한 이런 훈련을 반복함으로써, 우리는 텍스트의 모든 것, 곧 그 총체성에 주의력을 집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II. 텍스트를 통일된 하나의 총체로 읽어야 한다

텍스트의 ‘모든’ 요소들에 주의력을 집중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유는 그 ‘모든 요소들’은 물건들이 어떤 가방 안에 들어 있듯이, 혹은 한 사전 안에 단어들이 배열되어 있듯이, 텍스트 안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 텍스트는 자기의 모든 요소들을 구사하여 일종의 ‘통일된 총체성 *un tout*’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어들은 마치 한 사전 안에서처럼, 각 단어가 하나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양, 텍스트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텍스트는 마치 어떤 시계가 시간을 지시하기 위해 모든 톱니바퀴들을 구사하는 것처럼, 단어들을 가지고 의미를 만들기 위해, 자기 방식대로 그것들을 독특하게 선택하고 있다. 우리는 단숨에 한 번만의 독서 행위를 통해서 텍스트라는 총체의 의미 작용을 파악할 수 없다. 독자는 따라서 어떻게 텍스트가 자기의 모든 요소들을 가지고 총체적으로 의미 작용의 일을 하게 하는가를 알아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 텍스트는 어떻게 이것을 다른 것에 관련시킴으로써 관계성의 상태 안으로 그 요소들을 배치하며, 텍스트의 이것과 저것 사이에서 어떤 차이성들을 드러나게 하고 있는가를 소상히 관찰해보아야 한다는 말이다.

III. 실례를 들어보자: 「마르」 14: 3~9의 텍스트

3 그리고 예수께서 베다니아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을 때였다. 예수께서는 음식상을 받고 긴 의자에 누워 계셨는데 한 여자가 값비싼 나르드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그분의 머리에 부었다. 4 이제 그런데 어떤 이들은 몹시 화를 냈다. “왜 이렇게 향유를 낭비하는가? 5 이 향유를 삼백 데나리온 이상 (받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 그 여자에게 으르렁대며 투덜거렸다. 6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7 “사실 여러분은 주변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항상 만나게 되므로 매번마다 여러분이 원하면 언제나 그들에게 잘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하고 언제까지나 함께 있는 것은 아닙니다. 8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일을 했습니다. (내) 장례를 위해 내 몸에 향유 바르는 일을 앞당겨 한 것입니다. 9 진실히 여러분에게 이르거니와,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이 이야기되어져서 그녀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 텍스트를 읽으면서, 많은 이들이 예수가 발언한 다음의 문장으로부터 깊은 인상을 받는다. “사실 여러분은 주변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항상 만나게 되므로(혹은 될 것이므로)……” 만일 독자가 이 문장만을 따로 고립시켜 읽는다면, 그런 독자는 예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세상에서 가난을 추방하는 일이 성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함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모험을 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마치 이 말씀이 사회 안에서 가난과 비참의 원인들을 해소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 별소용이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양, 우리의 이 말씀을 인용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이렇게 하여 어떤 문장을 취하여 고립시킴으로써, 그 문장이 텍스트 안에서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바, 그 ‘총체성’과는 전혀 다른 또 하나의 엉뚱한 어느 ‘총체’ 안에 그 일부를 배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텍스트 안에서, 이 문장은 예수의 머리 위에 값비싼 향유를 쏟아 부은 여자를 반대하며 화를 잔뜩 내던 자들을 향해, 옹수하던 예수의 응답 말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왜 이렇게 향유를 낭비하는가? 이 향유를 삼백 데나리온 이상 받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수도 있었을 텐데……” 따라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 안에 있는 가난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향유를 예수 따위를 위해 남용하는 것이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예수는 자신의 응답에서 두 가지로 구별되는 행동 방식을 서로 대립시키고 있다. 즉

—“매번마다 여러분이 원하면 (……)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것,” 즉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잘 해주는 자선 사업이다.

—이 여자가 한 일(예수의 머리 위에 향유를 부은 일).

예수는 이상의 두 행동 방식을 서로 대립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독자는 무엇이 이 두 행동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텍스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잘 해주는 일(자선 사업)이 무익한 행동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고 또

자선 사업은 언제라도 필요하고 좋은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텍스트는 이 여자가 한 행동이 유익하다고 말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텍스트는 분명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적선은 언제나 유익하고 또 가능하지만,” 반대로 여자가 한 일은 유익성/혹은 무익성을 능가함으로써 그 차원을 달리하고 있으며, 또 그 일은 반복될 수 없는 유일회적(唯一回的)인 특성을 가진다고 말한다. 이 여자는 그와 같은 행동이 가능한 어느 순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다. 이 순간은 이제 더 이상 되돌아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자의 행동은 ‘나’ 곧 예수 자신에게 베푸는 자선 사업이다. 그녀는 “내 장례를 위해 내 몸에 향유 바르는 일을 앞당겨” 하였기 때문이다. 여자가 예수의 몸에 향유를 바르는 행위는 유익한 일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존경의 행위, 곧 죽을 예수의 몸에 대한 경의 표시의 행위인 것이다. 여인은 이 사실을 의식하는 일이 없이 그런 행동을 했다. 그것은 예수가 자기 머리 위에 향유를 쏟아붓는 여인의 행동을 목격하면서 자기에게 곧장 들이닥칠 죽음을 생각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자가 할 줄 알았던 그 행위의 순간은 유일회적인 순간이자 반복되는 것이 불가능한 행동의 시간이 되어버린다.

요약해서 말한다면, 텍스트는 의미를 산출하고 있고, 또 독자인 나는 위의 두 행동들 사이에 있는 차이점을 출발점으로 하여, 텍스트로 하여금 그 의미에 대한 질문을 나에게 해오도록 내버려둔다는 것을 지적한다. 차이점은 이중적이다. 즉

- | | |
|------------------|-----------------------|
| (ㄱ) 빈자들에게 적선하는 일 | (ㄴ) 예수의 머리 위에 쏟아부은 향유 |
| 유익하고 이득이 있다 | 무익하고 이득이 없다 |
| 언제라도 가능하다 |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

과연 자선 사업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득이 되는 그 무엇을 제공한다. 그들에게 삶의 도움이 되는 방편이 전달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예수의 머리 위에 부은 향유는 그에게 아무런 이득도 제공하지 않는다. 이 향유는 사랑

하는 사람에게 장미꽃을 선물하듯이 일종의 정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무상성에 입각한 경의 표시, 곧 그것은 예수의 몸을 위한 경의와 애정을 드러내는 일종의 '기호 *signe*' 인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이런 징표는 반복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이 징표가, 마치 우리 각자의 죽음과 예수의 죽음에서처럼, 유일회적인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IV. 첫 총평가

이 실례는 한 텍스트의 그 어떤 요소나 부분도 텍스트의 총체로부터 분리시켜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텍스트의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취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어떤 시계가 시간을 지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또 총체적으로 그 기능을 다하고 있는 다양한 모든 부속품들을 갖추어야 하는 것과도 비슷하다. 마찬가지로 모든 텍스트는 자기네들끼리 서로 연관되어 있는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분석가는 텍스트의 움직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텍스트 요소들간의 관계성들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 관계들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요소들간의 차이점들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고, 또 텍스트가 자기네 요소들간에 나타나게 하는 차이점들을 찾아보아야 한다.

우리는 방금 연구한 마르코의 설화가 내포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미 이런 연구는 텍스트의 모든 요소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점을 규명하고 있다. 이제 텍스트의 그 어떤 요소도 소홀히 다루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기 위해, 두번째로 일련의 지시 사항들을 여기에 제안한다.

V. 텍스트는 연극의 장면 전환과도 비슷하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 텍스트의 구성적 틀 안에 들어오는 요소들에 관해 언급했다. 어떤 요소들인가? 이 요소들을 식별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텍스트를 연극의 한 장면과 비교해보는 것이 유익하다. 연극의 한 장면처럼

럼, 텍스트도 존재들과 사물들의 표상을 제공하고 있고, 또 모종의 장소들 안에서, 또 상당 기간의 시간 동안에,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등장인물들의 행동을 우리로 하여금 관람하게 한다. 관람객이 무대 위의 어떤 장면에서 발생하는 일을 잘 추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행위자들, 시간 그리고 공간에 주의력을 집중하고, 이상의 세 요소들에 관해 언급된 모든 것을 세밀하게 관찰하며, 그리고 특히 그 요소들 사이에서 드러나는 차이점들을 식별해보는 것이다.

VI. 행위자들, 장소들과 시간의 순간들을 관찰하라

우리가 분석하던 「마르」 14: 3~9의 설화로 되돌아오자. 이 설화는 예수와 어느 익명의 여자 사이에, 또 다른 이들이 있는 자리에서, 어느 날 발생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장면에서 예수, 여자, 그외의 다른 이들은 행위자들이다. 이들은 어떤 연극의 장면에서처럼 행동을 하고 있고 또 자기네끼리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등장인물들이다. 독자는 그들이 어떻게 분장/소개되어 있고, 그들이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또 느끼고 있는 감정의 표시를 소상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 행위자들은 한정된 '공간' 안에서 행동을 한다. 다시 말해 얘기의 모든 일이 '베다니아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거기서 텍스트는 예수가 상을 받고 누워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지중해 연안 지방의 관습에 따르면, 귀한 손님들을 초대하는 식사에, 초대된 사람들은 긴 의자 위에 누워 오순도순 모여 식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텍스트는 또 어떤 여자가 예수가 있던 그 공간 안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연출하고 있는데, 이 여자는 값비싼 나르드 향유가 든 옥합을 손에 들고서,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식당의 공간 안으로 들어온다.

그 익명의 여인이 행동을 하는 '시간'은 단지 식사의 때라는 것 외에는 정확히 묘사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앞에서 지적했듯이 예수가 말씀하신 그 시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이 텍스트에는 두 가지 종류의 시간이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 두 시간은 가난한 이들에게 자선을 베풀

푸는 시간과 여자가 한 행동의 시간이다. 이것이 행위자들, 시간과 공간과 관련되는 텍스트 요소들에 대한 관찰 요령이다. 요소들에 관한 이 세 가지의 범주들을 구별한다는 것은 텍스트의 총체 중에서 그 어떤 요소들도 빠뜨리지 않고 읽으려는 일종의 방법론에 의존하고 있다.

VII. 차이점들을 지적하라

각 요소들을 자세히 관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요소들 사이에는 관계들을 알아볼 필요가 있고, 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요소들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점들을 똑똑하게 지적할 필요가 있다.

공간으로부터 시작해보자. 집 안의 식당 안에서 누워 있는 예수와 외부로부터 걸어들어오는 여자 사이에 이미 차이점이 나타난다. 텍스트는 다른 이들의 공간적 자세에 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는다. 아마도 초대 받은 손님들이라면, 그들도 예수와 마찬가지로 식사 동안에 긴 의자 위에 누워 있었다는 상상을 해볼 수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만이 홀로 누워 있다고 텍스트가 특기(特記)한 것에 유의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 아니다. 예수는 곧장 자기의 장례에 관해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관 속에 누워 있는 예수와 긴 의자에 누워 있는 예수 몸의 자세는 동일한 공간적 자세를 지적하고 있다.

시간에 관한 고찰에서, 이미 우리가 지적한 대로 지속되고 반복되는 시간(가난한 자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시간은 '언제나' 가능하고 반복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여러분이 원하면 그들에게 항상 잘 해줄 수 있습니다")과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을 유일회적인 순간(=여인이 행한 일의 순간과 예수의 장례 시간)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다. 독자는 다른 또 하나의 차이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수는 식탁에 누워 있고 또 이때는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되는 식사 때를 지적하고 있는 반면에, 여인은 식당 외부로부터 식사의 시간 동안에 안으로 들어오고 있고, 또 이 진입 행위는 식사를 중단시키고 어느 정도 뒤흔도는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익명의 여인이 하는 행동은 확실히 정상적인 식사의 전개를 방해하고 있고(상

식적으로 보아 그 여인이 회식에 초대되어 있지 않았던 불청객이기 때문이다), 또 식사 시간을 단절시키고 있으며 예견하지도 않았던 당돌한 사건임이 분명하다. 여인의 이런 행동은 자기의 친구들과 함께 있는 예수의 현존의 시간(“그러나 여러분이 나하고 ‘언제까지나’ 함께 있는 것은 아닙니다”)을 단절시킬 예수의 죽음과 그 장례와도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나 할까.

이리하여, 우리는 차이가 나는 방식으로 반복되고 있는 차이점들이 나타나는 것을 목격한다. 지속되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그 시간을 단절하는 사건(=여인의 식당 침입과 그녀의 행동)이 있다. 우리는 또 서로 다른 요소들 사이에 관계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여인의 침투와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뿌리는 행위는, 예수의 죽음처럼, 지속되는 시간을 단절시키는 사건과도 비슷하게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 여인의 그 행동은 결국 예수의 죽음이라는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는 말이다.

이제 행위자들 사이에 있는 관계들을 서로 비교해보자. 애기의 전개 과정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는 행위자들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다. 즉 예수, 여자, 그리고 그 정체가 분명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은 어떤 이들이 장면의 등장인물들이다. 네번째의 행위자가 있는데, 그는 아기 안에서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고 있다. 그는 회식의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집주인으로서 나병 환자 시몬이다. 그가 텍스트 안에 등장하는 것은 오로지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장소를 지적하기 위해서이다.

세 행위자들은 동일한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오직 여자만이 아무런 말 없이 몸말을 통해 행동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반응을 나타낸다. 그들은 벌컥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여인의 행동에 으르렁대며 투덜거리기도 한다(4절 처음과 5절 끝을 참조). 그리고 그들은 자기네끼리 서로 말을 주고받는다(4~5절에 인용된 그들의 말 참조). 예수는 어떤 이들에게 말을 건네며 이 여자에 관해 말씀하고 있다. 장면의 등장인물들은 세 가지 종류의 커뮤니케이션을 실행한다. 여자와 예수 사이의 몸말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여자와도 예수와도 의사 소통을 하는 일이 없이 자기네끼리만 하는 분노와 투덜거리는 말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예수와 그들 사이에

있었던 말씀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등이 그것들이다. 독자는 서로 그 무엇을 전달하고 있는 이 세 종류의 커뮤니케이션을 가까이에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자가 하는 행위는 사물들(옥합·향유)과 육체적인 제스처들(옥합을 깨뜨리다, 향유를 예수의 머리 위에 쏟아붓다)의 수준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행동은 마치 여자가 예수에게 옥합이나 향유를 선물로 바치듯이 하는 그 어떤 물건의 전달 행위가 아니다. 여자는 일종의 몸말, 제스처를 하고 있는데, 이는 그 무엇에 대한 의미 작용이 아닐 수 없다. 어떤 남자가 자기 애인에게 장미꽃이나 금반지를 선물하는 것은 공연한 제스처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텍스트 안에서 이 그 무엇은 말씀으로 그 의미가 언급된 것도 아니고 텍스트에 의해 그 의미 작용이 규명되지도 않는다. 여자의 이 행동은 분명 일종의 ‘기호(標識) *signe*’ 이지만, 불행하게도 텍스트는 그 기호의 의미 작용에 관해 묵묵부답이다. 그러나 여자의 행위는 어떤 이들과 예수를 통해 두 갈래로 아주 차이가 나는 방식으로 이해되고 있다.

어떤 이들은 여인의 행동이 ‘상실 *une perte*’ 이며 엄청난 낭비요 손실이라고 말한다. 이 손실은 돈으로 환산하면 삼백 데나리온 이상으로 그 값어치가 나가며(「마태」 20: 2을 독자가 만일 기억한다면 예수의 머리 위에 쏟아 부은 향유는 포도원 일꾼이 300일 동안 일을 한 봉급에 해당된다), 일단 낭비된 이상 그 물건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고 평가하며 계산한다. 그들은 여자의 제스처가 무엇을 뜻하는지도 보지 못했고 그 의미 작용이 무엇인지도 구태여 찾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본 것은 오직 상실된 물건이요, 또 이해한 바는 그 값을 계산할 수 있는 상품처럼 알아들은 향유인 것이다. 또한 그들은 향유가 어떤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정표 혹은 아니면 일종의 언어라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향유의 언어 *le langage du parfum*’ 가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그들은 이 여자와 예수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일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으며, 또 상인들과 빈자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일을 오직 상상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염려가 오로지 이론적이고도 허구적이며 상상적이란 것을 알 수 있다(“향유가 아직도 옥합에 담겨져 있다면, 사람들은 그것으로 적선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라는 식의 망상이다). 이윽고 여자에 대한 그들의 분노와 짐승파도 같은 으르렁거림은 그들이 얼마나 자기네의 관점에 고집하고 있으며, 팔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세계에 집착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또한 그들은 인간 위격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제스처들과 침묵 속에 맺어지는 관계들의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그들은 어떤 의미로 순수하게 유물론자들이리라.

반대로 예수는 여인의 그 행동에서 하나의 기호 혹은 정표를 읽고 있으며 또 자신이 수용하고 있는 그 정표에 대한 해석을 내리고 있다. 마치 죽은 자들을 매장하기 위해 그 시신에 향유를 바르는 것처럼, “그 여자는 내게 좋은 일을 했습니다”라는 해석을 예수가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해석은 여인이 기대한 것도 아니요 또 표현하고자 원했던 것도 아니다. 따라서 독자는 어떻게 예수가 이 기호에 대한 독서 행위를 하고 있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수는 여인의 그 행동에서 “자신에 대한 좋은 일”(6절)을 해준 것을 보고 있다. 예수는 여인의 그 행동이 자신을 목표로 겨냥하고 있고, 또 그것이 자기에게 말을 건네오는 일종의 몸말로써 자신의 인격을 건드리고 있으며, 또 자신의 인격에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여자는 예수의 머리 위에 향유를 쏟아붓고 있음에 반해, 예수는 “내 몸에 향유를 바른다”고 말씀하신다. 마치 머리 위에 흐르는 향유가 자신의 전육체를 덮으며 흐르는 양…… 드디어 향유를 받은 이 몸은 죽음을 통과하고 곧 매장될 자기의 육체인 것이다. 예수는 이 향유와 함께 다른 곳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상상의 세계 안으로 도피하지 않는다. 그분은 일어나는 사건과 자기의 몸을 건드리는 그 일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또 체험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분은 이 제스처가 자기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 몸말은 자신에게 임박한 죽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는 느끼고 있는 것이다.

VIII. 두번째 총평가

독자는 얘기된 행동의 행위자들, 장소들과 시간의 순간들에 대한 관찰을 오랜 시간 동안 할 수 있고, 또 이야기의 장면 위에 표상된 방식들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점들을 유의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이런 시간은 결코 낭비한 것이 아니다. 또 이 작업을 그룹을 지어 하는 것은 대단히 유익하다. 각자는 자신이 관찰한 점을 제시할 수 있고, 또 각자가 고유하게 관찰한 바를 텍스트에 건주어 확인함으로써, 비판을 하게 되며 차츰차츰 텍스트에 관한 주의력이 명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특히 독자는 점차 텍스트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배우게 되고, 또 그 자신이 거쳐하고 있는 작은 세계처럼, 독자는 그 텍스트를 따로 외울 정도로 내부로부터 알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이 작은 세계 안에서 독자가 익숙해진다는 말은 아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다고 말해야 하리라.

비록 독자가 텍스트 안에서 자신이 찾고 있던 바를 끄집어내지 못했다 할지라도, 텍스트가 자신을 성가시게 굴도록 마음을 허락했기에, '텍스트와의 이 만남' 으로부터 얻은 결실을 거두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텍스트가 바로 우리 안에 거쳐하고 있고, 또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고 명상하며 또 말을 하도록 해줄 것이다.

IX. 텍스트는 한 말씀의 자취를 고정시키고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텍스트 안에 표상되어 있는 대로의 행위자들, 공간과 시간에 대해서만 관심을 표명했다. 마치 텍스트는 어느 정도 자기가 얘기하는 역사의 거울을 표상하고 있는 양 취급된 것이다. 이때 텍스트가 우리가 생겨나기 이전에, 그리고 우리의 밖에서 발생한 어떤 이야기처럼 소개하는 바를, 관람하거나 혹은 상상을 하도록 해준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하지만 텍스트는 시각만을 겨냥하고 있는 거울이 아니다. 원래 텍스트란 단어들을 골재로 삼아 지은 건축물, 말을 하고 또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인간

적 존재들에게 말을 건네오는 일종의 언어 그 자체이다.

(구술 혹은 필기)로 된 언어는 단순하게 문장들 안에 아이디어들을 운반하게 하거나 혹은 단어들을 통해 표상된 존재들이나 세상의 사물들을 관찰하도록 하게 하는 일종의 방편이 아니다. 바로 이 사실이 ‘말씀 *parole*’으로 하여금 통과하게 하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 순환하도록 허락하고 있다. 말씀이란 언어가 아니지만, 바로 이 말씀이 언어를 통해 통과하고 또 단어들과 문장들을 통해 우리의 인간적 실존을 건드릴 수 있다.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의 힘에 대한 체험을 했다. 가령 예를 들면, 어떤 이가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이 나를 구체적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고, 흔히 다음과 같은 자문을 한다. “이 담론(혹은 연설)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은 나에게서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하고…… 흔히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담론을 통해 어떤 청취자에게 산출된 효과를 헤아려보지 못한다. 오히려 그 반대로 청취자가 이 담론 안에서 그 무엇이 자신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수하고도 단순하게 말씀과 담론을 동일시할 수 없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기 위한 담론들, 통과하는 말씀이 없는 텅 빈 담론들, 양철로 된 빈 깡통같이 떠들어대는 소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담론들을 통해 말씀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 혹은 여러 개의 문장들을 발설한다. 그 다음에 이 문장들이 우리의 담론 안에서 되풀이되어 돌아온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자문하기를 “내가 그 반복되는 문장 안에서 무엇을 말했는가?”라고 한다. 마치 우리가 말을 한 것을 통해 우리가 이미 능가되어버린 것처럼, 그런 자문을 하고 또 이 자문은 우리를 추적하게 된다(가령 한국 역사에 대한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의 경우처럼). 이 두 가지의 경우에, 발생된 단어들 혹은 문장들로부터 기인하지 않는 그 무엇이 통과한 것이다. 그 무엇이 우리를 내부에서 건드리고 있고 또 우리로부터 달아나고 있는 어떤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기 위해서 단어들 혹은 문장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체험들이 가능한 것은 우리 모두가 언어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말을 할 수 있기 훨씬 이전부터 언어를 통해 유표(有標)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말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심중에서 가장 귀중한 것을 언어를 통해 전달하기 위해 노상 어려움을 겪게 된다. 우리의 육체는 단어들로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사물들 때문에 압력을 받기도 하고 또 그 충격들로 인해 곤혹스러워하기도 한다. 사건이나 어떤 사물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경우에, 우리의 육체가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말을 할 수 없는 어떤 불가능의 벽에 부딪히면 부딪칠수록, 우리는 더욱더 이 불가능한 것에 대해 그 무엇을 말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결국 우리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는 것은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말을 할 수 없는 바가 그렇게 하고 있다. 말쑈은 우리 존재의 심층부를 건드리고 있는데, 그것은 말쑈이 우리를 초월하고 또 우리의 손으로부터 언제나 달아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고 또 시인들과 작가들로 하여금 말을 하도록 하는 노력들을 유발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적어도 말을 할 그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실상 ‘문자화 작업 *écriture*’은 말을 해야 하는 필요성과 말을 하는 것의 어려움을 동시에 체험하게 하는 가장 특전적인 자리이다. 문자화는 말쑈와 언어 사이의 투쟁인 것이다. 그런 이유로 어떤 책들은 이것들을 읽고 또 읽도록 우리를 충동하지만 그 의미가 소진되는 일이 없이 우리로 하여금 노상 다시 읽도록 하고 있다. 이런 책들은 말쑈 통과와 자취들을 고정하고 있다. 흙 위에 혹은 하얀 눈 위에 남겨진 자취들은 거기에 한 생자가 지나갔었다는 것의 기호이다. 그러나 그 생자는 이미 거기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냥꾼들은 그 자취들을 지켜봄으로써, 자기네가 찾고 있던 사냥 거리가 다시 지나갈 기회를 포착하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마찬가지로, 문자화 작업은 어떤 사람을 변화시켰고 또 다른 사람들도 변화시킬 수도 있는 한 말쑈의 자취들을 보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은 복음서들의 경우에 독특하게 진실이다. 독자는 「루가」 1: 1~4을 읽어볼 것이다. 복음서들이 씌어진 것은 사람들이 예수의 행동들과 담

론들, 그분의 생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통과한 말씀으로 인해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음서들을 쓴 사람들은 자기 차례가 왔을 때 예수께 대해 말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말씀이 다른 이들에게 충격적인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직 그 말씀을 듣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예수에 대한 말씀의 자취들을 고정시키려고 복음서들을 쓴 것이다.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고 있는 독서의 작업은 그 자취들을 알아보고 하는 일종의 노력이다. 행위자들, 장소들과 시간들 사이에서 텍스트가 설정하는 관계들을 찾아봄으로써, 우리는 말씀의 자취들을 재발견하고 또 우리를 변혁시킬 능력이 있는 한 말씀에 의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 자신들의 자세를 가다듬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베다니아에서의 향유 바름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점에 관한 한 대단히 강력한 시사를 하고 있다.

X. 말을 하게 하고, 읽어야 할 하나의 기호

이야기의 모든 것이 여자의 제스처, 곧 몸말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는데, 이 몸말은 묘사되고 있을 뿐이지 그 동기나 의미가 전혀 설명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 몸말에 대한 이해의 방식도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예수의 이해 방식이요 다른 하나는 어떤 이들의 이해 방식이다. 그런데 이 '어떤 이들은' 실제로 그 제스처의 의미를 전혀 읽지 않고 있고, 또 그 몸말에서 해석해야 할 어떤 기호를 도무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사물들과 이것으로 그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수준에만 머물고 있다. 향유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적선을 하기 위해 팔아먹을 수 있는 어떤 물건에 불과하다. 그와는 반대로 예수는 자신의 머리 위에 쏟아부은 향유를 '자기의 온몸 위에 쏟은 향유로 받아들이고 있고, 또한 이 사실은 그분으로 하여금 자신의 장례에 대해서 말을 하게끔 한다. 그분은 이 사실을 하나의 기호처럼 수용하고 있고, 그 기호에 대한 독서 행위를 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기호에서 자신을 위한 하나의 메시지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몸말은 여자

가 그것을 원했거나 혹은 생각했던 일이 없이도, 예수는 당신 자신을 겨냥한 일종의 말씀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다. 향유를 통해, 여자로부터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하나의 말씀이 도래하고 있고, 또 이 말씀은 죽음과 대면하고 있는 그분의 몸, 그분의 육체 전체를 송두리째 건드리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사실이 그분으로 하여금 말을 하도록 한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일종의 독서 모델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말씀이 통과하였고 또 그 효과를 독자(예수의 경우에도)에게서 산출하였기 때문이다. 독자가 또 유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은 이 모델에서 나타나는 예수와 '어떤 이들' 사이에 있는 대조이다. '어떤 이들'은 여자의 행위로 인해 질문을 당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전혀 가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 행위는 자기네들에게 큰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그들로 하여금 버럭 화를 내게 만들고 또 짐승처럼 으르렁거리게 한다. 다시 말해, 그들의 육체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고 또 자기네를 성가시게 하는 어떤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전적으로 결여되어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반대로 예수는 전혀 화를 내는 기색이 없다. 그분은 여자로 하여금 행동을 하도록 내버려두고 또한 식사 한가운데서, 또 준비도 없이 자기에게 들이닥치는 사건에 자상한 주의력을 집중함으로써, 그 여인의 몸말을 영접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의력을 집중하고,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으며, 자신이 텍스트 때문에 놀라도록 내버려두고 또 텍스트를 손님처럼 영접함으로써, 우리는 독서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XI. 얘기되어질 하나의 이야기

여자의 몸말은 예수로 하여금 말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오히려 예수는 여자의 제스처가, 그 여인의 행동을 기억하기 위해 얘기되어질 것이고, 모든 곳에서,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될 세상 도처에서' 얘기되어질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우리는 여인에 의해 행하여진 그런 제스처가 그토록 중대성을 띠고 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예수는 두 가지 종류의 담론이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온 세상에

선포될 복음의 담론이 있는가 하면, 여인이 한 행위를 이야기할 담론이 있는 것이다. 이 두 담론은 함께 발설될 것이고 또 동일한 장소에서 그렇게 될 것이며 그리고 동시에 온 세상에 마치 방향처럼 퍼질 것이다. 여기서도 독자는 공간(‘모든 장소’ 온 세상의 공간은 ‘유일하고, 정확하며 베다니아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발생한 일’의 공간과 대단히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에 관계되는 것과 시간(예수의 장례 이후의 미래 시간 — ‘시간의 제한 없이 복음이 도처에 선포되는 모든 시간 동안’ —은 여자에 의해 빠르고 유일회적인 행위로 이루어진 일의 시간과 큰 대조를 이룬다)과 관계되는 것을 서로 구별할 수 있다. 또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이런 선포를 위해 그 어떤 행위자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복음은 선포될 것이고 그 여자의 이야기는 얘기되어질 것이나 누가 그 일을 할 것인가는 알려져 있지 않다. 마치 복음을 통해 그리고 그 제스처에 대한 이야기하기를 통해 통과할 말씀이 그 자체로 충분하고, 또 언제나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 어떤 이를 언제라도 발견할 수 있다는 듯이! 마찬가지로 유의할 점은 텍스트가 ‘복음을 선포하는 행위’ ‘여인의 행위’ ‘이야기하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결코 이 선포와 이야기하기의 내용이나 혹은 단어들을 강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씀이 통과할 담론은 미리부터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이 두 행동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들이 있다. ‘복음을 선포하는 일’은 분명 한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과 동일하지 않다. 이야기하는 행동은 과거와 연관되어 있다. 이 행동은 그 여인을 기억하고 있고 특수한 사건을 이야기한다. 「마르」 1: 14~15에 따르면, 복음의 선포는 그것이 선포되는 곳과, 지금의 시간 안에서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있는 하느님의 왕권 통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 이 선포는 현재와 연관되어 있고 또한 그 선포가 말을 건네고 있는 이들을 위해 ‘복된 말씀’으로 소개되고 있다. 만일 이 두 행동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복음’이 예수에게 발생한 일을 기억하고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선포될 수 없다는 점이다. 그것은 그분에게 발생한 일을 통해 또 그분으로 인해서 발생한 일을 통해서만이, 하느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고 우리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있다는 것을 의

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또 말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야기하는 행위가 '복음'의 일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이 이야기하는 행위가 '기쁜 소식'을 운반하고 있고 또 그 행위가 겨냥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행복한 선언'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하느님으로부터 유래하고 또 복된 그 동일한 말씀이 말씀을 영접하는 이들에게 들려지도록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XII. 말씀이 탄생하기 위한 하나의 설화

베다니아에서 있었던 향유 바름에 대한 이야기하기는 복음의 '선포'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는 어떻게 마르코가 그 이야기를 처리함으로써 말씀의 운반자를 만들고 있는가를 알아보도록 노력할 수 있다. 이 설화는 여인의 행동이 어떻게 예수로 하여금 말을 하도록 하고 예수는 그 행동이 어떻게 영원히 말을 하도록 할 것인가를 선포하고 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언제나 독자를 위해 하나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한 어떤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향유에 관해 우리가 유의할 점들을 다시 취급해보자. '어떤 이들'에 따르면, 그 향유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팔아야 마땅한 물건인 것인 반면, 예수에 따르면 그 향유는 자신의 장례를 선참(先參)하는 귀중한 정표인 것이다. 이제 독자는 향유를 특징짓는 두 가지 방식들을 대조시켜볼 수 있다. 즉

—가난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팔아버린 향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존재할 것이다.

—곧 사라져 없어질 예수의 몸에 경의와 애정을 표시하기 위해 낭비된 향유.

이상의 두 사실은 서로 대립시킬 성질의 것이 아니다. 마치 둘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있더라도 하듯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적선을 하는 것과 예수의 몸에 경의를 표하는 것은 서로 대립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일은 언제나 가능하고 또 필요한 일이지만, 이 여자가 예수에게 한 것처럼 그분의 몸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이 여자가 한 일은 결코 재발생되지 않을 것이며 혹은 모방할 수도 없는 성질의 행동이다. 여자의 그 행동은 따라서 이야기되어질 가능성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단일성을 띠고 있고 유일회적인 이 행위에 적합한 반복적 행위의 형식은, 이야기하는 방식 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독자는 이미 유일회성이 말을 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야기하기는 '유일성 *le singulier*'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사건을 영속화하기 때문이다.

여인의 행위는 결정적으로 지나가버린 과거지사다. 따라서 우리는 그 행위를 반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수락할 필요가 있다. 그 행위는 유일회적이다. 그것은 (향유가 도유된 대로의) 예수의 몸이 유일하며 또 결정적으로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실된 향유와 상실된 예수의 몸 사이에는 일종의 유사성이 있다. 이제 우리 가운데서 그 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상실된 향유에 대한 '이야기하기 *narration*'와 사라진 예수의 몸의 기쁜 소식, 곧 복음이다. 이 두 상실에 대한 접근은 언어를 제외하고서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상실은 복원 불가능한 상태의 것이지만, 우리는 그 상실을 통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유일회적인 것이 우리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 유일회적인 것이 우리로 하여금 말을 하는 존재들, 듣는 존재들로 변형시킨다. 그것은 상실된 향유와 상실된 몸을 통해 통과한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살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직도 이 말씀은 상실된 향유에 대한 이야기하기와 상실된 몸의 선포를 통해 우리 가운데를 통과하고 있다. 우리가 이 두 실재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로지 기호들로 이루어져 있는 언어를 통해서 가까이 가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에 의해 유표(有標)되고 변형된 주체들이 되고, 또 다른 이들도 변형시킬 수 있는 말씀의 운반자들이 되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여기서 자문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 무엇을 움직이게 하고 있고, 아니면 어떤 경로를 거쳐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

는가라는 점에 대한 질문이다. 아마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상실을 통해, 또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결핍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말해야 하리라. '어떤 이들'에게 상실이 어려웠던 것처럼 향유의 상실은 참기 어려운 일이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보존하기를 원하거나 혹은 유익하고, 이득이 있으며 또 관대한 목적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의지하고 있었고 기대하던 모든 것으로부터 결핍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몸의 상실도 수락하기가 대단히 힘든 일이었다(「마르」 16과 「요한」 20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빈 무덤의 발견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볼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그분의 말씀을 두 귀로 들어볼 것을 원하고 있을 것이지만, 과거 시제로 씌어진 이야기들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 안에 거듭 탄생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도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말씀을 통해 다 같이 서로가 서로에게 의사 소통을 하는 것을 허락하고, 또 우리가 듣고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상실 *la perte*'은 진정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으리라!

3. 결 론

우리는 여태껏 어떻게 복음서들의 텍스트 속으로 들어가는가를 추구하였다. 그리고 아주 제한된 하나의 이야기를 이 훈련의 본보기로 삼았다.

이 실례를 통해, 우리는 복음서의 한 텍스트에는 단어들, 이미지들 혹은 추억들 이상의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배웠다. 우리는 이 텍스트에서 일종의 '현존 *présence*'을 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우리는 상상력과 허구적인 환상을 통해 예수의 부재를 보상하려는 것을 추구함으로써 이 현존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다. 예수는 이야기의 핵심부에 존재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이야기에 불과하다. 원래 이야기란 그분이 거기에 계시지 않음을 확인하는 단어들, 이미지들과 추억들

로 구성되어 있는 법이다. 사람들은 그분에 대해 과거 시제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허구적인 상상력은 언제나 절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만일 예수에 관해 얘기된 것이 과거지사라면, 반대로 그분에 대한 이야기하기와 우리가 읽고 있을 때의 그 이야기 사건은 현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로 이 '이야기하기 *speech-event*' 안에는 현존이 거처하고 있으며, 또 이 현존은 경청을 요구하는 한 말씀의 현존이 아닐 수 없으리라.

이야기하기는 우리 안에서 경청되도록 그 이야기를 선물로 내어주고 있다. 텍스트가 우리로 하여금 그 경청에 귀를 기울이도록 준비시키고 있다. 텍스트는 우리의 상상력을 점령하고,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게 하며 또 우리 자신들로부터 빠져나올 것을 요구함으로써, 또한 설화의 구성 속으로 진입하는 것을 시도하기 위해 우리들의 일상 걱정들과 직접적인 욕망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줌으로써, 그 경청을 향한 우리의 마음 자세를 가다듬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특히 텍스트는 우리 안에서 예수와의 직접적인 접촉에 대한 결핍을 발생하게 하고, 또 그분이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자극하고 우리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 이 만남의 어려움을 유발시키게 한다. 텍스트는 우리 안에서 소유하거나 혹은 취득해야 할 그 무엇이 아닌바, 한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이 심층적인 욕망은 텍스트라는 거울을 통해 살아 계신 '어떤 분'을 만나는 일을 지적하고 있다. 이 어떤 분은 당신의 말씀 안에서 단어들과 이미지들의 저 너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고, 또 우리를 당신의 품속으로 끌어안고 있는 것이다.